高 神 大 學
論 文 集 第 17 輯
1989. pp.83－92

설교자와 청중

－산상보훈을 중심으로－

黃 昌 起*

목 차

1. 서 론
2. 청중 구분의 유형
3. 청중 구분의 의미
4. 청중 오판의 결과
5. 결 론

Ⅰ. 서 론

산상보훈의 청중은 누구이며 그들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닌 사람들인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전제(assumption)를 가지셨던가? 이러한 것이 오늘날 설교자가 교인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가져야 할 태도를 결정해 주지 않는가?

산상설교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설교의 청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마4 : 24~5 : 24, 7 : 28).

〈4 : 24〉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 조교수, 신약학 전공

〈4 : 25〉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πολλοὶ ὄχλοι)가 좇으니라.

〈5 : 1〉 예수께서 무리를(τοὺς ὄχλους)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οἱ μαθηταί)이 나아온지라.

〈5 : 2〉 입을 열어 〈그들을〉[1] (αὐτοὺς) 가르쳐 가라사대.

〈7 :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οἱ ὄχλοι)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그런데 5 : 2에 번역 안 된 '그들'(αὐτούς)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5 : 1의 제자들만 가르치는가? 아니면 제자들과 무리들 모두를 가리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보기보다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5 : 11부터 인칭대명사가 3인칭 단수에서 2인칭 복수로 바뀌어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5 : 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5 :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5 :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5 : 18,20〉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5 : 21,22〉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위의 귀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앞에서 하신 말씀들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속 사용하시는 '너희'(ὑμεῖς, ὑμιν)는 누구일까? 위의 귀절들에 표현된 내용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오늘날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나 설교해야하는가?

II. 청중 구분의 유형

이상의 질문은 산상보훈의 청중문제와 관련된 물음들이다.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사람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상보훈 및 그와 관련되는 귀절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산상설교의 청중은 '제자들'과 '무리들'이다(마5 : 1~2, 눅6 :

1) 한글개역 성경은 〈5 : 2〉 καὶ ἀνοίξας τὸ στόμα αὐτοῦ ἐδίδασκεν ἀυτοὺς λέγων에서 αὐτούς를 번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He began to teach them, saying…으로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ἐδίδασκεν을 Inchoatvie(inceptvie) 또는 Conatvie imperfect로서 〈began to teach〉으로 번역한 것이 우리말 성경보다는 더 정확히 번역하였다.
(참조 A. T. Robertson, *A Gramme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23) p.885.
F. Blass and A.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p.169(§. 326).)

20, 마7 : 28). 누가복음은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ὄχλος πολὺς μαθητῶν αὐτοῦ)와 '많은 백성'(πλῆθος πολὺ τοῦ λαοῦ)이 예수님 설교의 청중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눅6 : 17). 또 이들은 '온 무리'(πᾶς ὁ ὄχλος) 로도 불리운다(눅6 : 19).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τοὺς μαθτὰς αὐτοῦ)을 보시고 설교하시기 시작하였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온 무리에게 차별없이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것을 알고 있다(막3 : 13, 16).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한다면 Hendriksen등이 말한대로 예수님의 청중들의 앉은 모형을 구상해 볼 수도 있겠다. 즉 청중들이 앉은 대형을 구별해 볼 수 있겠다.

"12명의 제자들이 구세주 바로 앞에 둘러 앉아 있고, 그 뒤로 다른 제자들이 둘러 서 있고, 그 뒤에는 더 큰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호기심을 가진자들도 있을 것이요, 또 무슨 흠이나 잘못을 찾아내려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2]

청중들이 앉은 모습에 따라서 구분되는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Hendriksen이 말한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향하여 앉은 거리가 모습에 따른 구분보다도 좀 더 확실한 것은 기능상으로 청중들을 구분하는 것이다. 우리는 Minear가 마태복음에서의 제자들(μαθηταί)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뽑히어 예수님의 사역중에서 가르치고, 병고치며, 무리들을 먹이는 일들을 계속하는 사람[3]들이라는 주장을 수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Keegan도 Minear와 같이 산상보훈이 아닌 다른 강화문(discourse)인 마태복음 14 : 13~21을 근거로 제자들은 무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하신 일을 계속 반복한다[4]고 지적한다.

무리(ὄχλοι)에 관해서도 너무 일방적인 주장은 합당하자 못함을 알 수 있다. 사실 Guelich같은 사람은 "무리란 아무 신학적인 의미도 없는 중립적인 합창단(neutral chorus)과 같다"[5]고 잘라 말했다. 그렇지만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요 대상으로서,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따르기도 하고, 병자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며,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모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무리들을 제자들과는 엄연히 구별된

2) W. Hendriksen, *The Gospel of Matthew*(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3), p.264, H. N. Ridderbos, *Mattheüs* I: *Korte Verklaring van de Heilge Schrift*(Kampen : KOK 1965) p.91, J. Schneider 'ἔρχομαι' TDNT Vol. 5 p.683.

3) P. S. Minear, "The Disciples and the Crowds in the Gospel of Matthew" *Anglican Theological Review Supplement Series* Vol 3. (1974) pp37~38.

4) T. J. Keegan 'Introductory Formulate for Mattheam Discourses" *Catholic Biblical Quarterly* Vol. 44. (1982) pp.424~425.

5) R. A. Guelich *The Sermon on the Mount* :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Waco : Ward Books, 1982) p.59. cf49~50.

것도 또한 사실이다.[6] 이상의 구분은 그들이 지닌 기능상의 구분이지 예수님 설교의 청중으로서 구별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청중의 자격때문에 산상설교에서 그의 제자와 무리를 차별하지 아니 하였지만, 종교적 구분은 분명히 하셨다. W. E. Egger가 지적한 대로 예수님은 그의 청중과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구분하였다.[7] 그들은 곧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자(마5 : 21~48), 믿음이 적은 자(마6 : 30), 외식하는 자(마7 : 5),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마5 : 17~48), 외식하는 자(마6 : 1~8, 16~18), 이방인(마6 : 7이하, 19~34)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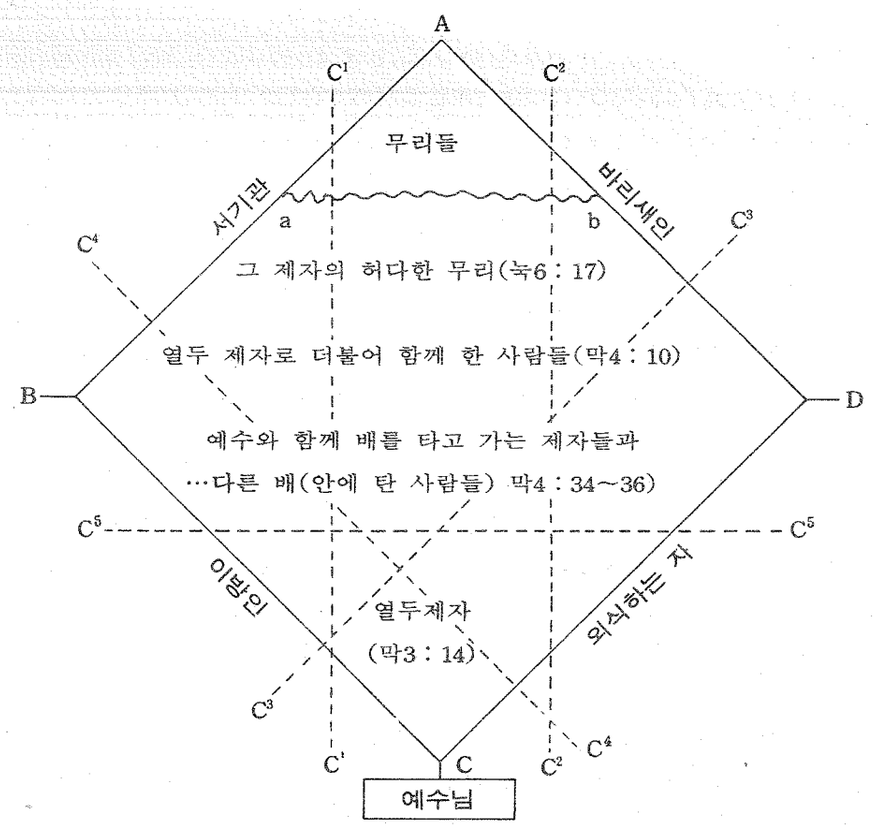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야할 것은 예수님의 이 종교적 구분은 사람을 계급별로 구분지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른 구별이라는 것이다. 그 실예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마7 : 5)라는 말을 그의 제자들에게 적용하셨다는 점인데, 이 점은 우리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산상보훈 이해에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설교에 나오는 여러가지 대립(Gegenüberstellungen)[8]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는 이방인과 같은 인간 자체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및 태도의 대립이라는 점이다.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5 : 20)고 하실 때 강조점은 사람 자체보다도 의(義)자체라는 점이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대조설명(Antitheses, 5 : 21~48)에서도 옛사람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법해석 자체에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義)를 실천에 옮기는 것(6 : 1~18)도 역시 사람에게 촛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방인(5 : 47, 6 : 7, 32)같이 되지 말며, 세리(5 : 46)와 같이 되지 말라고 명하신다. 마찬가지로 주의 제자라면 외식하는 자(마6 : 2, 5, 16, 7 : 5)와 같아서는 안되며 '주여, 주여'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들(마7 : 21)과 같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점은 그의 제자로서는 위에 말한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 자체를 결코 미워하지 않으나 다만 그 죄악의 행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다.

이상의 모든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청중의 구성은 다음 도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6) P. S. Minear op. cit p.30. 반대입장 J. D. Pentecost, "The Purpose of the Sermon on the Mount" *Bibliotheca Sacra* Vol115. (1958) pp.217.

7) W. Egger "Faktoren der Textkonstitution in der Bergpredigt" *Laurentianum* Vol.19(1978). p.193. Die Adressaten erhalten in Laufe der Rede eine Reihe von Merkmalen : Sie kennen das Gesetz ("Ihr habt Gehört…" 5 : 21~48), Kleingläubige (6 : 30), Heuchler(7 : 5)… Vor allem gilt dies vom Merkmal "Abgrenzung" : die Hörer sollen sich durch bestimmte Verhaltensweisen auszeichnen und sich so von allen anderen unterscheiden : dies gilt gegenüber den Schriftgelehrten und Pharisäern(5 : 17~48), gegenüber den Heuchlern(6 : 1~6, 16~18) : gegenüber den Heiden(6 : 7 f, 19~34)

8) W. Egger. op. cit pp.187~188.



Ⅲ. 청중구분의 의미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보훈 청중 구분이 어디까지나 외관상이요 기능적이며, 더욱 분명한 것은 종교적 구별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Guelich가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음과 같이 구별짓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

"둘 다 청중의 한 부분에 속할지라도, 다만 제자들은 들을 귀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 자들이다(13 : 10~16). 제자들은 반응을 보인자들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12 : 49~50, 12 : 46참조). 그들은 무리들과 정반대 편에 서 있다."[9]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Guelich가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로 그의 산상설교를 아무 차별없이 선포하시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10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

9) R. A. Guelich op.cit p.59.
H. L. Drumwright "The Sermon on the Mount" (In *Th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M. C. Tenney et al eds.)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6) Vol 5. p.350.

하셨을 때 들은 사람들은 열 두 제자만 아니고, 함께 한 사람들(οἱ περὶ αὐτοῦ σὺν τοῖς δώδεκα)이 있었다. 또 마가복음 4장 36절에도 비유를 말씀하시던 날 저녁까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탄 배 외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한 (καὶ ἀφέντες τὸν ὄχλον παραλαμβάνουσιν αὐτὸν ὡς ἦν ἐν τῷ πλοίῳ, καὶ ἄλλα πλοῖα ἦν μετ' αὐτοῦ) 사실로 보아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속에는 열 두 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약 교회의 중추로서, 새 이스라엘로서, 그 기능 및 역할면으로 본다면 무리들과 구별되지 아니 한다고 Ridderbos는 주장한다.[10] 다시 말하자면 제자와 무리의 구별 자체가 참 제자와 거짓 제자로 구분되거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계속해서 Ridderbos의 말을 들어보자.

> 마태가 13 : 34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완전히 자신을 가리웠다거나 영적으로 그들에게서 물러 서 버렸다는 뜻으로 마태가 기록한 것은 아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의 전(全) 행위로 그의 전(全) 인격으로, 모든 이적으로 백성들과 함께 계시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한 모든 것은 끝까지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었다.[11]

따라서 우리는 산상보훈의 청중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안에 있는 자이며, 반면에 무리들을 천국 밖에 있는 자로 나누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다. 산상보훈에 나오는 제자나 무리들을 두고서 우리가 택한 백성과 유기된 자를 판별할 수 없다. 산상보훈 자체가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으며, 또 그 구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인간이 구분해서도 안된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을 보아도 당장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의 열 두 제자는 사도요 신약교회의 핵심 인물로 뽑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진정한 제자는 아니었다. 가롯 유다가 그들 중에 있었다. 마찬가지로 무리들 중에도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도 참 제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리마대 사람

10) H. N. Ridderbos *The Coming of the Kingdom* (Trns from Dutch by H. de Jongste, R.O.Zorn ed.) (Philadelphia :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2) p.125.

11) Ibid pp.127~128. Ridderbos는 그의 마태복음 주석 *Mattheüs I : Korte Verklaring van de Heilige Schrift* (Kampen : J. H. KOK. 1965) p.91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Voor hen(discipelen) is Jezus' woord in de eerste plaats bestemd. Toch zijz ook de scharen onder het gehoor, 7 : 28, vgl. Lu 7 : 1 en worden zij ook mede aangesproken, 7 : 29, vlg.bijv ook 7 : 24. De bergrede wordt dus niet tot de twaalf discipelen gericht in hun kwaliteit van toekomstige apostelen.
Wat Jezus in de bergrede eist, geldt voor het leven van een ieder, die in het koninkrijk der hemelen wil ingaan, vgl. 7 : 13~27.
참조 F. W. Grosheide, *Het Heilig Evangelie volgens Mattheüs* (Kampen : J. H. KOK, 1954) p.65.

부자 요셉(마27 : 57), 니고데모(요19 : 39)같은 사람이 그 좋은 예이다.

산상보훈에서 단수 또는 복수의 인칭대명사로 표현 된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택자 혹은 언약의 자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12] 오히려 그 인칭대명사는 예수님의 설교를 자기 개인의 삶에 적용해야 할 사람들을 특별히 지칭하여 가리키는 말이다.[13]

위의 도표에서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는 경계선 ab나 선분AB, BC, CD, DA는 참 제자와 거짓 제자의 구획선이 아니다. 이 신분들은 다만 외관적, 기능적 그리고 종교적 사회적 신분의 구분일 따름이다. 진정한 구획선은 점선분(CD, C^2D^2, C^3D^3, C^4D^4, C^5D^5)으로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상적일 뿐이다. 이 구분의 실제적 적용은 택자와 비택자를 나누며 참제자와 거짓 제자의 구분이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른 주권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산상보훈의 청중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Ellis와[14] 같은 사람들이다. 그는 제자(μαθηταί)에 적응되는 본문(passage)과 무리(ὄχλοι)에 적용되는 본문을 구분지으려 하고 있다. Dumbrell과 Kingsbury같은 사람도 동일한 오류에 빠져 버렸다. 왜냐하면, 산상보훈에 나오는 '무리'(ὄχλοι)란 예수님 당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 집단 대중이요, 나아가서 현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는 불신의 무리들이라고[15] 그들 스스로가 판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본문에 접근할 때, 나름대로의 교리적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읽기 때문이며, 이는 본문에도 없는 것을 자기가 덧붙여서 읽어가기 때문이다.[16] 이 현상은 본문의 뜻을 석의(exegesis)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 외부에 있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서 본문을 읽어 들어가는데(eisegesis)서 비롯된 것이다.

요약하자면 산상보훈에서 구분짓고 있는 것은 외부적이요 기능상의 구분이며 또 종교적 사회적 지위의 구분일 따름인데, 이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주권에 속한 구분 즉, 택자와 비택자, 참 제자와 거짓 제자,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은 자, 천국에 들어간 자와 못들어간 자로 판별짓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12) 이것과 반대입장 W. D. Davies, *The Setting of the Sermon on the Mount,* (Cambridge : At the University Press, 1964) pp.94~97.

13) 참조 W. Egger, op. cit pp.194~195 : B. Gerhardsson "Geistiger Opferdienst nach Mattheüs 6 : 1~6, 16~21" (In H. Baltensweiler und Bo Reicke Hrsg. *Neues Testament und Geschichte* (Cullmann-Festschrift) (Zürich : J. C. B. Mohr, 1972) p.71. ; P. J. Maartens "The Cola Structure of Matthew 6." *Neotestamentica* Vol. 11. (1977), pp.60~71.

14) P. F. Ellis, *Matthew : his Mind and his Message* (Collegeville : The Liturgical Press, 1973) pp.34~36.

15) W. J. Dumbrell "The Logic of the Role of the Law in Matthew 5 : 1~20. *Novum Testamentum* Vol 23. (1981) p.10 n.31, J. D. Kingsbury, *The Parables of Jesus in Matthew 13.* (Richmond : John Knox Press. 1969) pp.27, 42.

16) T. J. Keegan, op. cit. p.424 n.40.

Ⅳ. 청중 오판(誤判)의 결과

우리는 지금까지 산상보훈의 청중 구분이 어디까지나 사회적 종교적인 구분이요 표면적이고 편의상의 구별이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판단과는 연결지을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 같고,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실제 많은 학자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하나님의 위대한 예정교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히 이 문제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즉 설교자의 측면과 설교를 듣는 사람의 측면이다.

먼저, 설교자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는(혹은 다닌다는) 사실로써 그들이 모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참신자)라고 전제하여서는 안되겠다. 교인들 가운데 유아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한 사람이라고 하여, 이들은 언약의 자손이니 그들에게는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식의 메세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뜻이다. 그런 교리적 전제에 빠지면 산상보훈에서 말하는 모든 경고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세지는 더 더욱 전하지 못하게 된다. 설교는 영생과 영벌의 메세지로 구성되야 한다. 구원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듯이, 심판의 현재성과 미래성도 있다. 현대 성경 신학의 문제점 중에서 영생의 현재성과 미래성은 어느 정도 이해되었고 메세지도 균형을 이루며 성도의 생활면에 적용됨으로 유대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탈피하여 가고 있지만, 심판에 관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미래적인 심판만 강조되고 있어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을 답습하고 만 있는 것이다.[17] 이 오해가 앞에서 언급한 설교자가 자기 교인들(청중)을 오판한 결과와 합쳐지면 그 심각한 위험성은 상당히 증폭된 효과로 교계 안에 침투하여 교인들의 영적상태를 황폐시킬 것이다.

산상설교 자체 또는 설교자의 본문은 제자와 무리를 영생에 들어 갈자요 영벌에 처할 자로 구분할 줄 모른다. 다만 산상설교는 참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자와 거짓으로 따른 자를 구별하고 있다. 사실상의 청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모든 성경 본문)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다만 모두가 다 그 설교를 듣지는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산상보훈의 청중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설교했는가가 아니라, 누구가 그 설교를 듣고 행하느냐의 문제이다.

만일에 성경 본문이 누구든지(ὅς ἐάν)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저주와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 설교자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 여기에서 설교자 스스로가 먼저 '이 사람들은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이 메

17) 황창기, "최근 성경신학의 문제점" 교회문제연구 제4집 (1985) pp.187~194.

세지는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짓는 것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만일 설교자가 이런 식으로 자기 교인을 판단하면, 이것은 교인을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들어갈 자로 판단하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대권을 자기가 도용한 죄를 범한 결과가 된다. 물론 설교자는 목회적 차원에서 신자들의 신앙도를 짐작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못하면 목회자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나 성경이 차별하지 않는 것을 설교자가 그 영혼의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짓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거의 비슷하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산상보훈의 청중을 오판하듯이 잘못 이해하면 대개 그 본문의 적용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온다. 이유는 산상보훈에 나오는 청중을 택함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로 나누면 으레히 자기 자신은 택함을 받은 자로 분류하게 되고, 그 설교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경고에 귀를 막아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늘날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교회나 교인들이 너무 현실에 만족하여 생명력을 잃고 있는 이유중에 많은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강력한 심판의 경고는 자기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회개와 심판을 설교하는 자를 오히려 증오하기까지 한다. 이런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의 개혁교회가 현실에 안주하며, 영적인 암병이랄 수 있는 '침체의 늪'에 깊이 빠져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교인들의 오류는 바로 목회자의 오류와 직결되어 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그런 오류에서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요약 하자면 산상설교의 청중에 대한 오판은 현대 교회의 성장 및 부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Ⅴ. 결 론

우리는 산상보훈 청중 가운데 '제자'들은 택자이며 '무리'들은 불택자라는 식의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성경이 밝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밝히려해서는 안된다. 산상보훈에서 '누구든지'(ὅς ἐάν : 5, 19) '…하는 자마다'(πᾶς ὁ, 7 : 21, 26), 누구든지 (πᾶς ὅστις, 7 : 24)로 표현된 자들의 영원한 처지를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들어 가는 것을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행위는 칭의(justification)에서 성화(sanctification)로 이어지는 구원의 서정을 뒤집는 것이요, 이런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됨으로 그 결과는 비참한 패배자가 되는 것 뿐이다.

우리가 위와 같은 특수 국면으로까지 행동화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논의하여 온 바와

같은 오류에 빠져 있으면 이것은 신자 각 개인의 성장에 큰 장애가 되며, 나아가서 그러한 신자가 많은 교회는 성장보다는 오랜 침체속에 헤매게 된다.

산상보훈의 여러 청중 가운데서 누가 참 이스라엘이요, 참 제자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도 아무 구별없이 설교하시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누가 언약의 참 자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모든 시대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야 한다. 오직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참 백성 곧 구원받은 사람 뿐이다.

高 神 大 學
論 文 集 第 17 輯
1989. pp.93－115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종말에 대한 재 해석

한 정 건*

A review on the eschatology of matthew 24

Ⅰ. 서 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 장에서 종말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농축되어 있기에 흔히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하고 나면 종말론에 대해서 다 논하였다고 할 정도이다. 이렇게 본문이 담고있는 내용의 중요성과 또 종말론에서 차지하는 본문의 위치가 큰데도 한국 교회에서는 본문이 잘 다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너무 쉽게 해석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본문의 해석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지는 것은 본문이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인지, 아니면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인지 하는 문제이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관례에서는 본문은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A. Schweitzer 등의 "임박한 종말론"(the imminent eschatological sayings of Jesus)이 대두되면서 부터 (Schweitzer, 1954 : 357ff)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본문을 예루살렘 멸망을 겨냥한 임박한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견해는 현대의 계약신학자들 중에서도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을 반박하기 시작하면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본 논문에서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가 주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위해 주어졌는지 아니면 세상 종말에 관한 것인지, 혹은 두 사건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피며, 또 세상 종말에 관한 예언들 이라면 어떠한 일들을 우리는 예상하면서 준비해야 할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조교수, 구약학전공